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농업 현장 안전 강화

농촌진흥청, '농작업 재해예방 핵심 수칙' 쉽고 분명하게 전달... 사고 예방 수칙 안내문 10종 제작·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작업 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농촌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26년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다양한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 가운데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기계 교통사고, 전도·전복·끼임 등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온열질환·농약 중독·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농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사고 종류와 사고 예방 수칙 안내문 10종을 제작·보급한다.

고령농업인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그림·사진 등을 적극 활용해 안내문을 만들 방침이다. 이후 읍면동 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해 농업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농촌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26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추진한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주관하는 농업인 대상 온라인 및 집합교육에서 농작업안전 영상을 우선 시청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도 강화했다.

농작업안전 자가점검표(농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을 교육자료에 첨부해 농업인이 반복해서 보고 익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 현장 기술 지도 공무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작목 기술과 안전 지도를 병행하는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작업안전을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책 발굴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도 추진한다. 농업 현장 안전 수칙, 위험 요소 개선, 안전 실천 방안 및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우수영상과 현장 사례를 선별해 확산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농작업안전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스스로 점검하고, 안전 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해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을 시작으로 지방 농촌진흥기관장, 농업 관계기관장과 농업인 단체, 민간기업 기관·단체장이 농업인 안전을 당부하며 안전 실천 의지를 북돋우는 안전 실천 참여 이어가(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

농업인이 농작업안전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스스로 점검하고, 안전 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해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을 시작으로 지방 농촌진흥기관장, 농업 관계기관장과 농업인 단체, 민간기업 기관·단체장이 농업인 안전을 당부하며 안전 실천 의지를 북돋우는 안전 실천 참여 이어가(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JF-ESG ESG 경영' 종합보고서' 발간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의 2025년 ESG 경영 성과와 2026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ESG 추진체계 고도화

바이오진흥원, 2025년 ESG 경영 성과·2026년 추진방향 발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지난 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JF-ESG ESG 경영보고서' 발간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의 2025년 ESG 경영 성과와 2026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오진흥원이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체계적으로 이어오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ESG 종합 보고서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정책과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보고서로 기관 운영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했으며,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의 윤리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등을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지속 추진해 왔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해 ESG 추진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ESG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기관 주요 사업과 연계한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과 간 연계성 제고, 사회·지배구조 분야 추진 메시지 구체화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높인 2025년 ESG 경영의 주요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ESG 실천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바이오진흥원은 ESG를 단순한 보고서 관리 지표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기관 경영 전반에 내재화된 지속가능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과 상생협력 강화,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윤리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등을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지속 추진해 왔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해 ESG 추진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ESG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기관 주요 사업과 연계한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의 2025년 ESG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오진흥원이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체계적으로 이어오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ESG 종합 보고서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정책과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보고서로 기관 운영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했으며,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의 윤리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등을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지속 추진해 왔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해 ESG 추진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ESG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기관 주요 사업과 연계한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의 2025년 ESG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오진흥원이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체계적으로 이어오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ESG 종합 보고서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정책과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보고서로 기관 운영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했으며,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의 윤리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등을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지속 추진해 왔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해 ESG 추진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ESG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기관 주요 사업과 연계한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업용 필름·비료' 수급·가격 동향 현장점검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농협 합동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중동진행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이 국내 농작업 산업 및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용 필름과 비료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제히 점검한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7일부터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총 10개 팀, 240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자재(Polyethylene(폴리에틸렌), PE) 사용량·재고량 및 향후 필요량을 확인하고, 제품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재고를 보유하거나 제품 생

산을 감축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동진행 전후 원자재 가격 변동도 확인한다.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재센터 및 민간 자재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3~5개소, 전국 약 7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제품 재고량 및 수요량을 확인하고, 중동진행 전후 공급·판매량 및 제품 가격 변화 등을 확인하여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원가 상승 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

다.

아울러 비료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전국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17개 비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보관 상태와 원자재 및 완제품 재고량을 확인하는 등 비료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요소사용 비료는 완제품 및 원자재 재고 고르 시 7월까지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으로, 가수요 방지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비료 구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인공지능 연구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인공지능(AI) 혁신과제 그래픽 처리장치(GPU) 배분 사업' 결과,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했다.

28개 부처가 제출한 121개 과제 가운데 농촌진흥청 과제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팅센터는 올해 말까지 최신형 엔비디아(NVIDIA) B200 서버 4대(그래픽 처리장치(CPU) 32장)를 지원받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확보한 자원의 75%를 투입해 농생명 특화 거대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생명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대화형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25%를 활용

해 농생명 데이터 기반 연구 시설 도출 등을 도출 인공지능 연구원을 개발하고 고도화에 나선다.

최신 B200 서버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를 방대한 농생명 빅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최적의 연구 시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실험종 육성과 소재 발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연구개발(R&D) 가속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하나금융 전북혁신도시 금융거점 조성 환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7일, 하나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집적한 '하나금융 자본시장 원 투프(One-Roof) 센터'를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대체투자 운용, 증권 은행(수탁영업), 콜센터 기능을 통합한 거점을 구축하고, 이곳에 최초 150여 명의 임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인력과 기능을 집적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도 전했다. 전북 소재 주요 대학과 연계한 창업 교육, 유류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가 전용 사무공간 마련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플랫폼 강화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KB 신한 우리금융에 이어 하나금융까지 국내 4대 금융자주 모두가 금융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하나금융이 국민연금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윤리경영 콘텐츠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일부터 2026년 윤리경영 콘텐츠 이모티콘 공모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윤리·공정·책임·철학·내부통제 등 윤리경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국민이 함께하는 윤리경영 실천 모델로 문명화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윤리 관련 메시지를 담은 이모티콘 4종 이상 10종 이하를 한 세트에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세부 내용 및 참여 방법은 공사 공식 블로그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전주 더블생활권 입지 '광신프로그레스' 오픈

최근 주거 선택 기준에서 '생활 인프라 완성도'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미 형성된 신도시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더블생활권'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주에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가 각각 독립된 신형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생활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행정기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이 이미 형성된 만큼, 두 생활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는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입지적 장점을 갖춘 단지로서 (주)광신종합건설이 공급하는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가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256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1층~지상 22층, 6개 동 총 352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 세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84㎡A 315세대, 84㎡B 37세대로 계획됐다.

설계 측면에서도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구성이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

두 도시 인프라를 한번에

결정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또한 해당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 안정성과 분양대금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도를 높인 구조다.

분양가 역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책정됐다.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의 분양가는 3.3㎡당 약 1,300만 원대로, 최근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을 낮춘 가격대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흐름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가격 조건은 희소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약 자격은 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만 아니라 세대원도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이 없고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유연한 조건을 갖춘 점도 특징이다.

한편, 건본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일원에 마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 상담처에 문의하면 된다.

설계 측면서 주거 편의성 고려

에코시티·만성지구 이용
교육환경·교통 여건 양호

으로 향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배후수요 확보가 기대된다. 산업과 주거가 인접한 구조는 안정적인 주거 수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교통 여건 역시 양호하다. 동부대로와 기린대로를 통한 시내 이동이 수월하며, 호남고속도로 전주IC와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서원주IC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산역의 여객 기능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조성되는 MICE 복합단지 개발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대형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산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면서 전주 북부권은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 조감도

이처럼 더블생활권 기반의 즉시 누리는 생활 인프라, 산업단지 및 대형 개발사업이 더해지면 미래가치를 동시에 갖춘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는 전주 주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신규 공급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수요자 부담을 낮춘 계약 조